

---

## 2014년 경상북도 및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

---



경상북도



울진군

# 2014년 경상북도 및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

- ◆ 2014년 경상북도 및 울진군 사회조사('14. 9월실시) 결과를 보고함  
\* 가구와 가족, 교육, 노동, 안전, 환경, 문화와 여가 등 6개 부문에 대해 실시

## 1 조사개요

### □ 조사시점 및 기간

- 조사시점 : '14. 9. 15. 0시
- 조사기간 : '14. 9. 15 ~ 9. 26(12일간)

### □ 조사대상

- 대상가구 : 520가구(26개 표본조사구)
- 응답대상 : 가구내 만15세 이상 가구원

### □ 조사항목(총 46개 항목)

- 공통항목 : 월평균 생활비 등 40문항
- 군 자율항목 : 6문항

### □ 조사방법

-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하는 타계식 조사 원칙
- 불가피한 경우 조사표를 사전 배부하는 자계식 병행

### □ 동원인력(총 12명)

- 조사요원 : 9명(조사원 8명, 조사관리자 1명)
- 입력요원 : 2명
- 공무원 : 1명

### □ 소요예산 : 9,291천원(도 6,504, 군 2,787)

## ■ 가구와 가족

도내 가구 중 분거가족비율은 31%로 직장으로 인한 분거가족이 많음

|                       | <2013>  | <2014>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● 분거가족과 분거이유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▶ 분거가족 비율             | 30.1%   | → 30.7% |
| ▶ 직장으로 인한 분거          | 49.3%   | → 47.0% |
| ▶ 학업으로 인한 분거          | 39.0%   | → 41.4% |
| ● 선호하는 가족형태           | <남자>    | <여자>    |
| ▶ 부모님과 함께             | 29.0%   | 26.1%   |
| ▶ 1인가구                | 4.6%    | 21.1%   |
| ▶ 유자녀 부부              | 41.4%   | 43.7%   |
| ●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형태 선호사유 | <29세이하> | <60세이상> |
| ▶ 부모님에 대한 당연한 의무      | 39.7%   | 62.9%   |
| ▶ 생활비 절약등 경제적 도움      | 21.9%   | 7.7%    |

## ■ 교육

대학생이 있는 가구는 11%, 비문해자수는 11만명, 비문해자 비율은 4.6%

|                       | <2013> | <2014>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●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 ▶ 대학생이 있는 가구비율        | 12.1%  | → 11.4% |
| ▶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(부모 도움) | 54.4%  | → 49.1% |
| ▶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(대출)    | 19.5%  | → 13.3% |
| ● 문해율(文解率)            | <2013> | <2014>  |
| ▶ 비문해자수               | 114천명  | → 108천명 |
| ▶ 비문해자 비율             | 4.9%   | → 4.6%  |

## ■ 노동

전년대비 근로자 직업안정성은 높아졌으나 지역경제·일자리상황 인식은 나빠짐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2013> | <2014>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● 임금근로자의 직업안정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 ▶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 할 수 있다는 근로자 비율 | 81.7%  | → 92.1% |
| ▶ 현재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( 1년이하 )  | 11.3%  | → 5.6%  |
| ▶ 현재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( 5년이상 )  | 59.0%  | → 70.0% |
| ● 지역경제 및 일자리상황에 대한 인식         | <2013> | <2014>  |
| ▶ 지역 경제(나아질 것이다)              | 42.9%  | → 31.8% |
| ▶ 지역 일자리(나아질 것이다)             | 40.1%  | → 31.4% |
| ● 직업만족도                       | <2013> | <2014>  |
| ▶ 하는 일                        | 38.5%  | → 47.4% |
| ▶ 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.8%  | → 34.5% |
| ▶ 장래성                         | 27.1%  | → 37.0% |

※ 연도비교가 없는 통계는 2014년 결과자료

## 환경

주민 거주지역의 대기, 수질 등에 대한 현재 환경체감도는 전년에 비해 떨어짐

| ● 환경체감도('좋다'의 비율)  | <2013> | <2014>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▶ 대기의 질            | 60.7%  | → 56.4%    |
| ▶ 강, 하천, 호수의 질     | 51.3%  | → 49.6%    |
| ▶ 토양의 질            | 48.2%  | → 44.6%    |
| ▶ 소음, 진동           | 44.0%  | → 43.1%    |
| ▶ 녹지 환경            | 65.2%  | → 52.2%    |
| 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| 노력한다   | v.s. 노력않는다 |
| ▶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     | 52.1%  | 18.2%      |
| ▶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      | 72.4%  | 4.4%       |
| ▶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   | 68.9%  | 5.2%       |
| ▶ 합성세제 사용을 줄임      | 55.8%  | 8.3%       |
| ▶ 일회용품 사용자제        | 55.0%  | 9.4%       |
| ▶ 에너지절약형 제품구입      | 59.1%  | 10.7%      |
| ▶ 환경, 자연보호운동 참여    | 27.7%  | 39.3%      |

## 안전

우리사회의 전반적 안전상태에 대해 위험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음

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
| ● 우리사회의 안전상태 변화   | 안전하다  | v.s. | 위험하다   |
| ▶ 2년전과 비교         | 25.2% |      | 33.7%  |
| ▶ 2년후 예상          | 30.0% |      | 25.5%  |
| ● 분야별 사회안전 상태     | 안전하다  | v.s. | 위험하다   |
| ▶ 전반적 사회안전        | 18.3% |      | 24.9%  |
| ▶ 국가안보            | 25.9% |      | 34.5%  |
| ▶ 자연재해            | 24.5% |      | 29.4%  |
| ▶ 정보보안            | 12.7% |      | 45.8%  |
| ▶ 신종전염병           | 11.2% |      | 52.6%  |
| ● 야간 보행 안전도       | 남자    | v.s. | 여자     |
| ▶ 야간보행에 두려운 곳이 있다 | 24.5% |      | 24.1%  |
| ● 자신의 준법수준        | 남자    | v.s. | 여자     |
| ▶ 잘지킨다.           | 76.1% |      | 72.7%  |
| ● 우리 국민들의 공공질서수준  | 노력한다  | v.s. | 노력 않는다 |
| ▶ 차례지키기           | 58.3% |      | 7.5%   |
| ▶ 거리환경질서          | 43.3% |      | 20.9%  |
| ▶ 보행질서            | 43.9% |      | 13.7%  |
| ▶ 운전자 교통질서        | 40.2% |      | 14.6%  |
| ▶ 공공장소 금연         | 42.4% |      | 19.4%  |
| ▶ 공공장소 정숙         | 36.5% |      | 22.9%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b>● 교통이용 수단</b>          | <b>&lt;2013&gt;</b>   | <b>&lt;2014&gt;</b> |
| ▶ 승용/승합차                  | 30.8%                 | → 26.4%             |
| ▶ 자전거                     | 3.4%                  | → 4.3%              |
| <b>● 교통안전시설 만족도</b>       | <b>&lt;만족한다&gt;</b>   | <b>&lt;만족않음&gt;</b> |
| ▶ 만족비율                    | 31.7%                 | 11.7                |
| <b>● 국가기관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</b> | <b>&lt;2013&gt;</b>   | <b>&lt;2014&gt;</b> |
| ▶ 행정기관                    | 36.4%                 | → 36.0%             |
| ▶ 사법기관                    | 33.6%                 | → 32.7%             |
| <b>●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</b>      | <b>&lt;불안하지않음&gt;</b> | <b>&lt;불안하다&gt;</b> |
| ▶ 국내산                     | 45.2%                 | 14.1%               |
| ▶ 수입산                     | 11.6%                 | 52.5%               |
| <b>● 식품안정성에 대한 인식</b>     | <b>&lt;불안하지않음&gt;</b> | <b>&lt;불안하다&gt;</b> |
| ▶ 친환경(유기농)식품              | 55.1%                 | 7.7%                |
| ▶ 국내산 농수축산물               | 50.6%                 | 8.6%                |
| ▶ 수입산 농수축산물               | 8.6%                  | 54.2%               |
| ▶ 가공식품                    | 8.6%                  | 50.6%               |
| ▶ 유전자 변형식품(GMO)           | 6.0%                  | 64.2%               |

## ■ 문화와 여가

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인구비율은 43% ; 세대간 인터넷 활용 격차가 큼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<b>● 문화예술행사 관람인구 비율</b> | <b>&lt;남자&gt;</b>    | <b>&lt;여자&gt;</b>    |
| ▶ 문화예술행사                | 45.9%                | 31.4%                |
| ▶ 음악,연주회                | 8.7%                 | 6.3%                 |
| ▶ 영화                    | 40.5%                | 27.7%                |
| ▶ 박물관                   | 9.7%                 | 5.1%                 |
| <b>● 문화예술행사 정보입수경로</b>  | <b>&lt;29세이하&gt;</b> | <b>&lt;60세이상&gt;</b> |
| ▶ TV                    | 12.3%                | 25.3%                |
| ▶ 인터넷                   | 65.5%                | 9.8%                 |
| ▶ 입소문                   | 15.2%                | 36.3%                |
| <b>● 문화예술행사 만족도</b>     | <b>&lt;29세이하&gt;</b> | <b>&lt;60세이상&gt;</b> |
| ▶ 참여후 만족도               | 64.4%                | 72.7%                |
| <b>● 문화예술시설</b>         | <b>&lt;남&gt;</b>     | <b>&lt;여&gt;</b>     |
| ▶ 시설 만족도                | 25.0%                | 24.9%                |
| <b>● 여행경험자 비율</b>       | <b>&lt;남&gt;</b>     | <b>&lt;여&gt;</b>     |
| ▶ 국내여행                  | 49.7%                | 35.6%                |
| ▶ 해외여행                  | 10.6%                | 6.0%                 |
| <b>●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</b> | <b>&lt;남&gt;</b>     | <b>&lt;여&gt;</b>     |
| ▶ 여행                    | 24.3%                | 20.5%                |
| ▶ 휴식                    | 11.1%                | 14.1%                |
| ▶ 사교관련                  | 9.7%                 | 11.8%                |
| ▶ 문화예술관람                | 8.1%                 | 6.8%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| <29세이하> | v.s. | <60세이상>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인터넷 활용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
| ▶ 인터넷 뱅킹, 폰 뱅킹 서비스 이용 | 50.9%   |      | 4.7%    |
| ▶ 문자 메시지 이용율          | 93.1%   |      | 18.8%   |
| ▶ 이메일 보유율             | 90.7%   |      | 5.7%    |
| ▶ 홈페이지 보유율            | 52.7%   |      | 2.5%    |
| ▶ 인터넷 동호회 가입율         | 26.6%   |      | 1.6%    |
| ▶ SNS 사용율             | 88.8%   |      | 6.8%    |
|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용          | <2013>  |      | <2014>  |
| ▶ 3만원 미만 가구비율         | 20.8%   | →    | 26.0%   |
| ▶ 20만원 이상 가구비율        | 16.7%   | →    | 17.0%   |
| 전자상거래                 | <29세이하> | v.s. | <60세이상> |
| ▶ TV 홈쇼핑              | 29.2    |      | 5.2     |
| ▶ 증권거래                | 3.3     |      | 0.8     |
| ▶ 상품구매                | 54.2    |      | 4.0     |
| ▶ 예약 및 예매             | 41.6    |      | 1.8     |

# I. 가 족

## 1. 분거가족과 분거이유(60세미만)-가구주

### 도내 분거가족의 비율은 30.7%, 분거이유는 「직장」이 47.0%로 가장 높음

- 가구주 연령이 60세미만인 가구에서 직장, 학업 관계로 가구원이 타지에 살고 있는 「분거가족」 비율은 30.7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  - 여성 가구주의 분거비율이 36.3%로 남성보다 6.8%p. 높음
  - 연령별로는 50~59세가 53.5%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「분거이유」는 「직장」이 47.0%로 가장 높았고, 「학업」 41.4%, 「군대」 6.4%의 순
  - 「직장」으로 인한 가족분거시 여성가구주가 66.4%로 남성가구주 42.1%보다 높음



【시군별 분거가족 비율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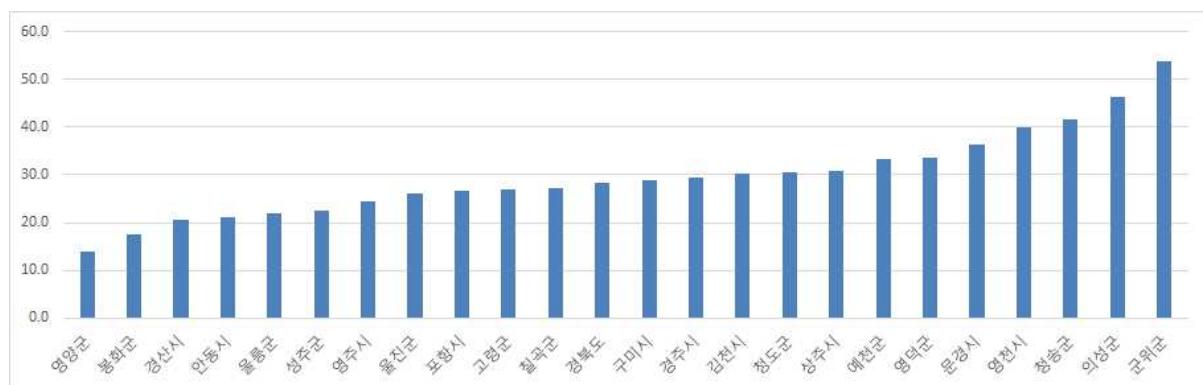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     | 분거가족<br>비율 | 분거이유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
|      |            | 직장   | 학업   | 가족간<br>불화 | 건강상<br>이유 | 자녀<br>교육지원 | 군대  | 기타  |
| 2013 | 30.1       | 49.3 | 39.0 | 1.2       | 0.9       | 1.6        | 6.5 | 1.4 |
| 2014 | 30.7       | 47.0 | 41.4 | 1.3       | 0.6       | 2.2        | 6.4 | 1.0 |
| 남    | 29.5       | 42.1 | 45.6 | 1.3       | 0.6       | 2.7        | 6.6 | 1.0 |
| 여    | 36.3       | 66.4 | 24.6 | 1.7       | 0.3       | 0.4        | 5.4 | 1.2 |

## 2. 선호하는 가족형태-가구주

**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「유자녀 부부」 49.3%, 「1인가구(독신)」는 9.2%**

- 도민들이 선호하는 가장 선호하는 가족형태는 「유자녀 부부」로 전체의 49.3%를 차지하였고, 이어 「부모님과 함께 유자녀 부부」 25.5%의 순으로 나타남
- 「1인가구(독신)」 선호비율은 9.2%를 차지하였고 성별로 남자는 4.6%인데 비해 여자는 21.1%로 여자가 「1인가구(독신)」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연령대별로 「유자녀 부부」 선호도는 30~39세가 69.8%로 가장 높고 60세이상은 38.7%로 연령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
- 29세이하 63.1%, 30~39세 69.8%, 40~49세 62.3%, 50~59세 50.4%, 60세이상 38.7%



**【선호하는 가족형태: 부모와 함께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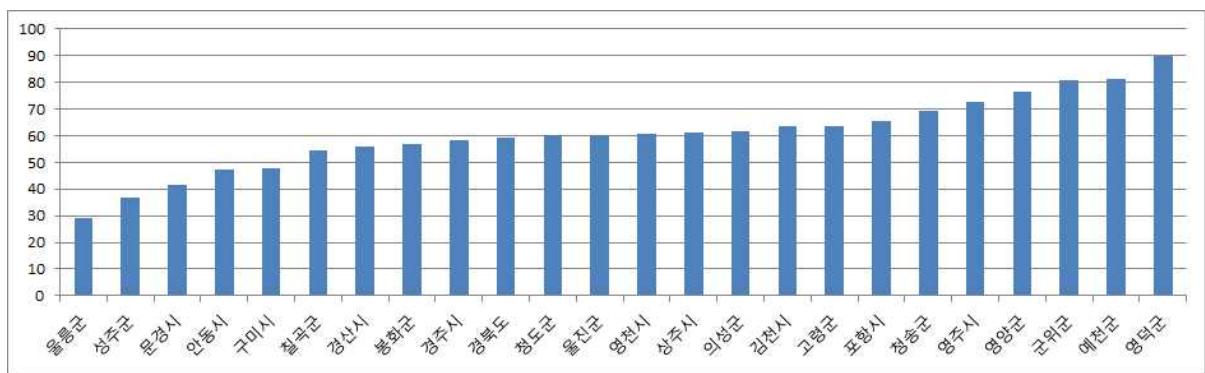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구분   | 부모님과 함께 |       |       | 1인가구<br>(독신) | 무자녀부부 | 유자녀부부 | 기타  |
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     | 독신      | 무자녀부부 | 유자녀부부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
| 2014 | 1.3     | 1.4   | 25.5  | 9.2          | 13.2  | 49.3  | 0.1 |
| 남    | 1.2     | 1.5   | 26.3  | 4.6          | 14.8  | 51.4  | 0.1 |
| 여    | 1.5     | 1.1   | 23.5  | 21.1         | 8.9   | 43.7  | 0.2 |

### 3.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족형태를 선호하는 이유-가구주

####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족을 선호하는 이유는 「부모님에 대한 당연한 의무」

-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족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「부모님에 대한 당연한 의무」 59.4%로 가장 높고 이어 「가족간의 화합용이」 20.7%, 「생활비 절약 등 경제적 도움」 8.2%의 순으로 나타남
- 연령대별 선호사유
  - 「부모에 대한 당연한 의무」 : 60세이상이 62.9%로 가장 높음
  - 「자녀 양육문제 해결」 : 30~39세가 12.2%로 가장 높음
  - 「자녀의 교육효과 증진」 : 전 연령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임
  - 「생활비 절약 등 경제적 도움」 : 29세이하가 21.9%로 가장 높음
  - 「가족간의 화합용이」 : 전 연령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임



【선호하는 가족형태: 부모와 함께】

(단위 : %)

|        | 부모에 대한<br>당연한<br>의무 | 자녀양육<br>문제해결 | 자녀의<br>교육효과증진 | 생활비 절약 등<br>경제적 도움 | 가족간의<br>화합용이 | 기타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2014   | 59.4                | 5.6          | 5.5           | 8.2                | 20.7         | 0.7 |
| 남      | 60.4                | 5.8          | 5.7           | 7.5                | 20.3         | 0.4 |
| 여      | 56.4                | 4.9          | 4.7           | 10.3               | 22.0         | 1.7 |
| (연령별)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
| 29세이하  | 39.7                | 8.5          | 5.5           | 21.9               | 23.1         | 1.2 |
| 30~39세 | 49.5                | 12.2         | 6.4           | 6.8                | 23.4         | 1.8 |
| 40~49세 | 55.1                | 7.3          | 8.0           | 7.5                | 21.9         | 0.2 |
| 50~59세 | 58.7                | 5.4          | 6.2           | 8.8                | 20.3         | 0.6 |
| 60세이상  | 62.9                | 4.2          | 4.4           | 7.7                | 20.2         | 0.7 |

## II. 교육

### 4.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-가구주

**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은 「부모(가족)의 도움」 49.1%, 「장학금」 27.8%의 순**

- 가구내 대학생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11.4%로 3년간 감소 추세
  - 2012년 12.6% → 2013년 12.1% → 2014년 11.4%
-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은 「부모(가족)의 도움」 이 49.1%로 가장 많고 이어 「장학금」 27.8%, 「대출」 13.3%의 순으로 나타남



**【등록금 마련방법 : 대출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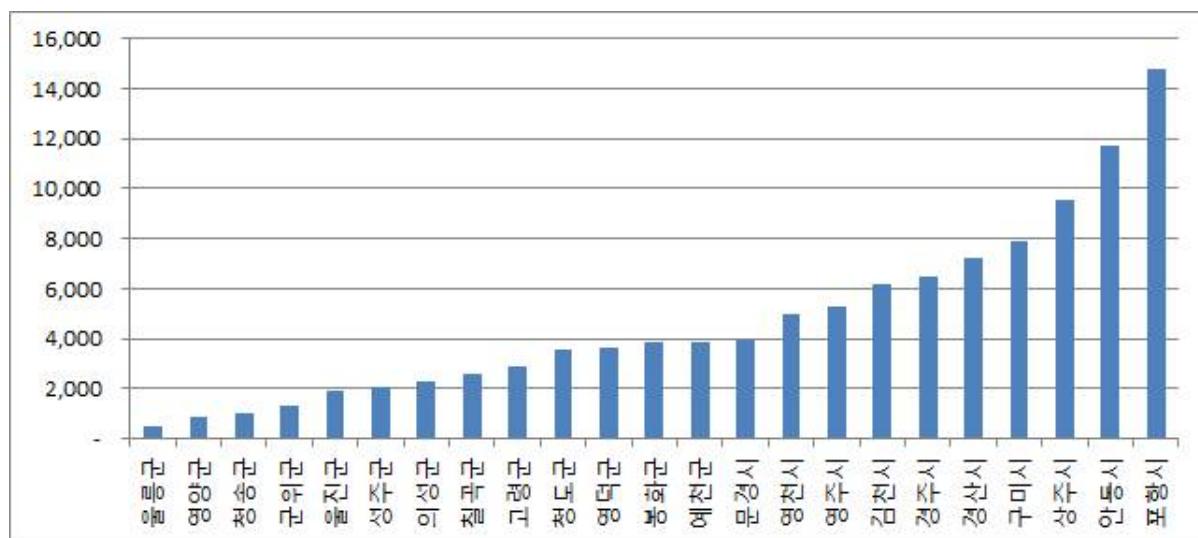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구분   | 가구내 대학생 유무 |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 |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|
|      |            | 부모(가족)의 도움   | 대출   | 학생 스스로 마련 | 장학금  | 기타  |
| 2012 | 12.6       | 62.1         | 17.2 | 4.1       | 13.4 | 3.3 |
| 2013 | 12.1       | 54.4         | 19.5 | 2.7       | 14.2 | 9.1 |
| 2014 | 11.4       | 49.1         | 13.3 | 6.7       | 27.8 | 3.1 |

## 5. 문해율 – 가구주

### 도내 비문해자수는 108천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4.5% 차지

- 도내 15세이상 인구 중에서 중졸미만이면서 한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자 수는 108천명으로 전년 114천명에 비해 5% 감소함
- 비문해자 비율은 도 전체 240만명 중에서 약 4.5%를 차지함



【 시군별 비문해자수 】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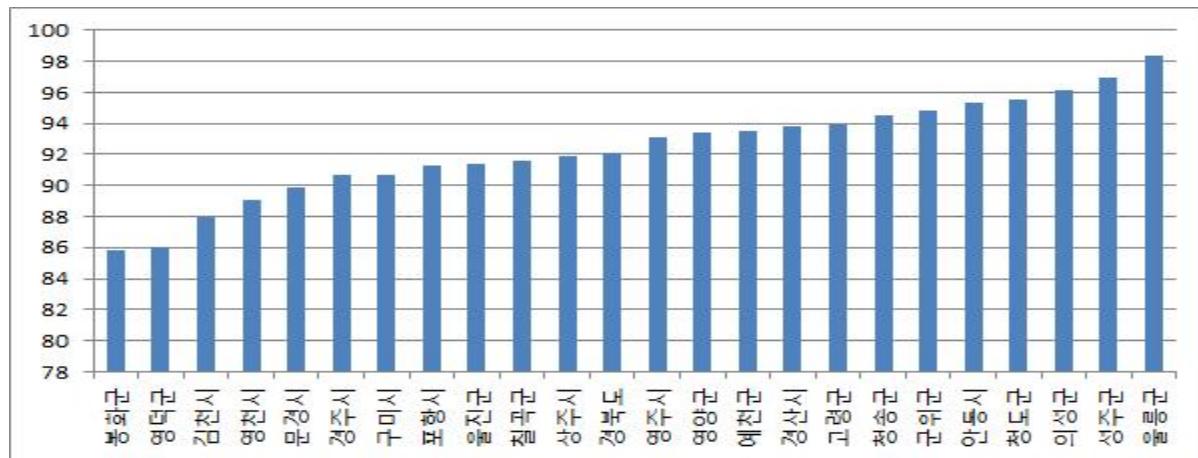
| 구분   | 비문해자수   | 15세이상 인구  | 비문해자 비율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2011 | 147,132 | 2,316,733 | 6.4     |
| 2012 | 121,380 | 2,327,163 | 5.2     |
| 2013 | 113,787 | 2,338,741 | 4.9     |
| 2014 | 108,209 | 2,397,024 | 4.6     |

### III. 노동

## 6. 임금근로자의 직업안정

「큰 잘못이 없는 한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」는 근로자는 92.1%

- 도내 전체 근로자 중에서 「큰 잘못이 없는 한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」는 근로자는 92.1%로 나타남
  - 성별로는 남자 92.6%, 여자 89.0%로 성별로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남
  - 「현재 직장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는가」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년이상이 70.2%로 가장 높고 이어 2년이상 5년미만 16.5%, 1년초과 2년미만 7.7%의 순으로 나타남
  - 성별로 「5년이상 근무할 수 있다」는 비율은 남자 72.2%, 여자 57.8%로 남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

## 【 큰 잘못이 없는 한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비율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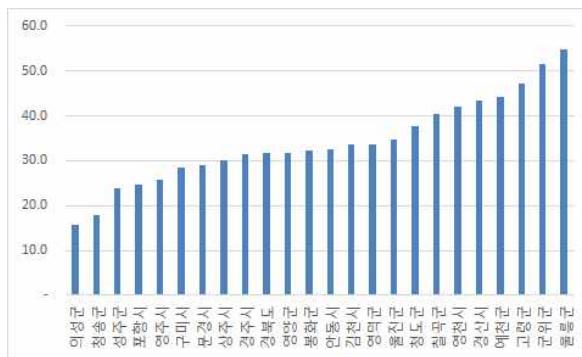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구분   | 큰 잘못이 없는 한<br>현직장에서 계속<br>일할수있다 | 현재 직장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는가?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이하                    | 1년초과~2년<br>미만 | 2년이상<br>5년미만 | 5년이상 |
| 2013 | 81.7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.3                    | 12.8          | 16.9         | 59.0 |
| 2014 | 92.1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6                     | 7.7           | 16.5         | 70.2 |
| 남    | 92.6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9                     | 7.0           | 15.9         | 72.2 |
| 여    | 89.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.8                     | 11.9          | 20.5         | 57.8 |

#### 7. 지역경제 및 일자리상황에 대한 인식

향후 5년내 지역경제 및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년 대비 비관적으로 바뀜

- 「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상황이 향후 5년내에 나아질 것이다」는 비율은 31.8%로 전년 42.9%에 비해 11.1%p. 감소함
  - 「나빠질 것이다」는 비율은 11.3%로 전년대비 3.9%p. 증가하여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 - 「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상황이 향후 5년내에 나아질 것이다」는 비율은 40.1%로 전년 31.4%에 비해 △8.7%p. 감소함
  - 「나빠질 것이다」는 비율은 12.8%로 전년 8.5%에 비해 4.3%p. 증가하여 지역고용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

【 지역경제에 대한 인식 】



## 【 지역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인식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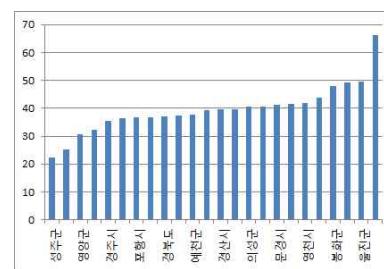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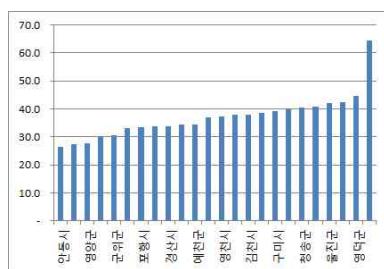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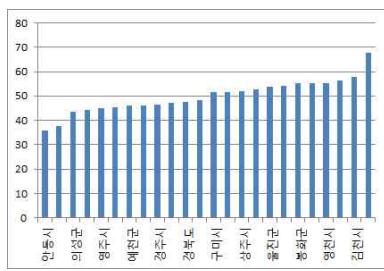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구분   | 지역 경제   |           |         | 일자리 상황  |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     | 나아질 것이다 | 변동 없을 것이다 | 나빠질 것이다 | 나아질 것이다 | 변동 없을 것이다 | 나빠질 것이다 |
| 2013 | 42.9    | 49.8      | 7.4     | 40.1    | 51.4      | 8.5     |
| 2014 | 31.8    | 56.8      | 11.3    | 31.4    | 55.8      | 12.8    |
| 남    | 31.6    | 56.5      | 12.0    | 31.0    | 55.6      | 13.5    |
| 여    | 33.0    | 58.5      | 8.5     | 33.4    | 56.8      | 9.8     |

## 8. 직업만족도

**직업만족도 : 「하는 일」 47.5%, 「임금」 34.5%, 「근로시간」 34.5%**

- 「하는 일」에서 「만족한다」는 근로자의 비율은 47.4%로 전년 38.3%에 비해 8.9%p. 증가함
  - 성별로 남자는 48.3%, 여자는 41.9%가 하는 일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함
- 「임금」에서 「만족한다」는 비율은 34.5%로 전년 24.8%에 비해 9.7%p. 증가함
  - 성별로 남자는 35.3%, 여자는 29.5%가 하는 일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함
- 「근로시간」에서 「만족한다」는 비율은 34.5%로 전년 24.8%에 비해 9.7%p. 증가함
  - 교육정도별로 대졸이상은 51.5%가 「만족한다」고 응답한 반면, 초졸이하는 22.4%만 만족한다고 응답
    - 교육정도별 「만족한다」 비율 : 초졸이하 22.4%, 중졸 25.0%, 고졸 34.4%, 대졸이상 51.5%



**【하는 일】**

**【임금】**

**【장래성】**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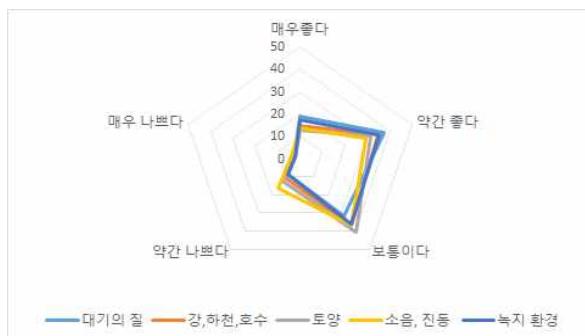
|      |       | 매우 만족 | 약간 만족 | 보통   | 약간 불만족 | 매우 불만족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
| 하는 일 | 2014년 | 8.9   | 38.5  | 42.3 | 9.5    | 0.9    |
|      | 남 자   | 9.1   | 39.2  | 41.9 | 9.0    | 0.8    |
|      | 여 자   | 7.5   | 34.4  | 44.5 | 12.3   | 1.3    |
| 임금   | 2014년 | 5.4   | 29.1  | 44.2 | 19.2   | 2.1    |
|      | 남 자   | 5.6   | 29.7  | 44.0 | 18.7   | 2.0    |
|      | 여 자   | 4.2   | 25.3  | 45.8 | 21.8   | 2.9    |
| 장래성  | 2014년 | 6.0   | 29.0  | 44.8 | 17.3   | 2.8    |
|      | 남 자   | 6.2   | 29.8  | 44.6 | 16.8   | 2.6    |
|      | 여 자   | 4.8   | 24.3  | 46.1 | 20.7   | 4.2    |
| 근로시간 | 2014년 | 6.4   | 30.6  | 45.2 | 15.5   | 2.3    |
|      | 남 자   | 6.7   | 31.3  | 44.8 | 15.0   | 2.3    |
|      | 여 자   | 4.8   | 26.6  | 47.1 | 18.6   | 2.9    |

## IV. 환경

### 9. 환경체감도

#### 현재 환경상태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

- 현재 환경에 대해 대기, 수질, 토양, 소음·진동, 녹지환경에서 전년보다 나빠짐
  - 「대기의 질」은 '좋다'는 비율이 56.4%로 전년 60.7%에 비해 4.3%p. 감소함
  - 「강, 하천, 호수의 질」은 '좋다'는 비율이 49.6%로 전년 51.3%에 비해 0.7%p. 감소함
  - 「토양의 질」은 '좋다'는 비율이 44.6%로 전년 48.2%로 전년에 비해 3.6%p. 감소함
  - 「소음, 진동」은 '좋다'는 비율이 43.1%로 전년 44.0%에 비해 0.9%p. 감소함
  - 「녹지환경」은 '좋다'는 비율이 52.2%로 전년 65.2%에 비해 13.0%p. 감소함
- 2년전과 비교한 환경변화
  - 「대기의 질」은 '좋다'는 비율이 42.9%로 나타남
  - 「강, 하천, 호수의 질」은 '좋다'는 비율이 39.5%로 나타남
  - 「토양의 질」은 '좋다'는 비율이 35.2%로 나타남
  - 「소음, 진동」은 '좋다'는 비율이 33.8%로 나타남
  - 「녹지환경」은 '좋다'는 비율이 43.4%로 나타남



【현재 환경에 대한 견해】

【2년전과 비교한 환경변화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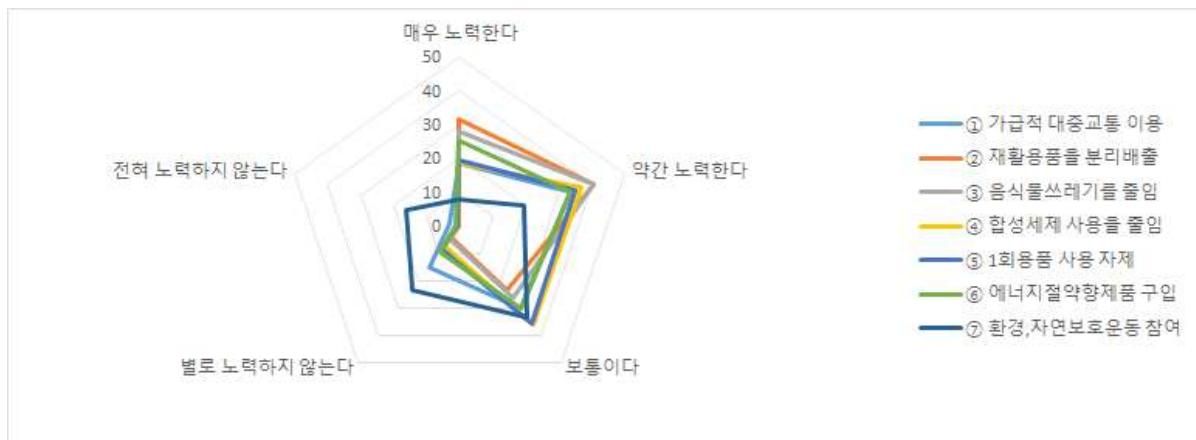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        | 현재 환경에 대한 견해 |      |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| 2년전과 비교한 환경 변화 |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|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|
|         | 매우 좋다        | 좋다   | 보통이다 | 나쁘다  | 매우 나쁘다 | 매우 좋다 | 좋다             | 보통이다 | 나쁘다  | 매우 나쁘다 | 매우 좋다 | 좋다 |
| 대기의 질   | 18.9         | 37.5 | 31.9 | 8.8  | 2.9    | 12.2  | 30.7           | 45.8 | 9.3  | 2.0    |       |    |
| 강,하천,호수 | 14.6         | 35.0 | 36.7 | 10.8 | 2.9    | 10.2  | 29.3           | 47.7 | 10.6 | 2.2    |       |    |
| 토양      | 12.8         | 31.8 | 40.7 | 12.2 | 2.5    | 9.2   | 26.0           | 50.4 | 12.2 | 2.1    |       |    |
| 소음, 진동  | 13.8         | 29.3 | 36.7 | 16.1 | 4.1    | 9.7   | 24.1           | 47.4 | 15.5 | 3.4    |       |    |
| 녹지 환경   | 17.1         | 35.1 | 36.5 | 8.8  | 2.5    | 12.8  | 30.6           | 46.5 | 8.1  | 1.9    |       |    |

## 10. 환경오염방지노력

###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나 환경·자연보호 운동에는 잘 참여하지 않음

- 「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」는 비율은 52.1%
- 연령별로는 29세이하가 63.6%로 가장 낮고 40~49세가 77.1%로 가장 높음
- 「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한다」는 비율은 72.4%로 남자(72.6%), 여자(71.5%)간 차이가 없음
- 「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」는 비율은 68.9%로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임
- 「합성세제 사용을 줄인다」는 비율은 55.8%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
○ 29세이하가 37.7%, 30~39세 50.0%, 40~49세가 57.7%, 50~59세 61.6%, 60세이상 59.4%
- 「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」는 비율은 55.0%,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용자제를 노력하지 않음
- 「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구입한다」는 비율은 59.1%,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구입비율이 높음
- 「환경 및 자연보호운동(활동)에 참여」에 '노력한다'는 비율은 27.7% '노력하지 않는다'는 비율은 39.2%로 나타남



【환경오염 방지노력】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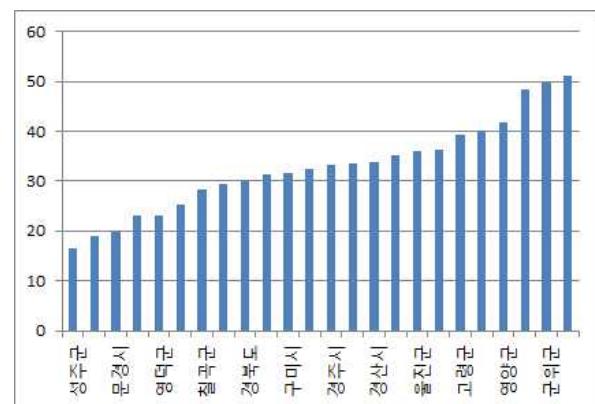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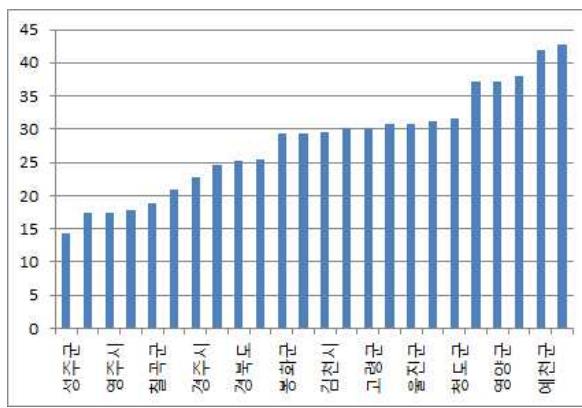
|                | 매우 노력한다 | 약간 노력한다 | 보통이다 |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|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 | 18.6    | 33.5    | 29.8 | 15.0        | 3.2         |
| ②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  | 31.5    | 40.9    | 23.2 | 4.0         | 0.4         |
| ③ 음식물쓰레기를 줄임   | 28.3    | 40.6    | 25.9 | 4.7         | 0.5         |
| ④ 합성세제 사용을 줄임  | 18.8    | 37.0    | 35.9 | 7.5         | 0.8         |
| ⑤ 일회용품 사용 자제   | 19.8    | 35.2    | 35.7 | 8.6         | 0.8         |
| ⑥ 에너지절약형제품 구입  | 25.6    | 33.5    | 30.1 | 9.3         | 1.4         |
| ⑦ 환경,자연보호운동 참여 | 8.1     | 19.6    | 33.0 | 23.2        | 16.1        |

## V. 안 전

### 11. 우리사회의 안전상태 변화

#### 2년전과 비교해서 우리사회의 안전상태는 위험해졌다라는 비율이 높음

- 「2년전과 비교」 하여 우리사회의 안전상태는 ‘안전해졌다’는 비율은 25.2%인데 비해 ‘위험해졌다’는 비율은 33.7%로 위험해졌다라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  - ‘위험해졌다’는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 ‘1백만원 미만’은 28.9%인데 비해 5백만 원 이상은 37.5%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「2년후 예상」은 안전해 질것이라는 비율은 30%인데 비해 위험해 질 것이라는 비율은 25.5%로 향후 우리사회의 안전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



【2년전과 비교한 안전하다 비율】

【2년후 예상 안전하다 비율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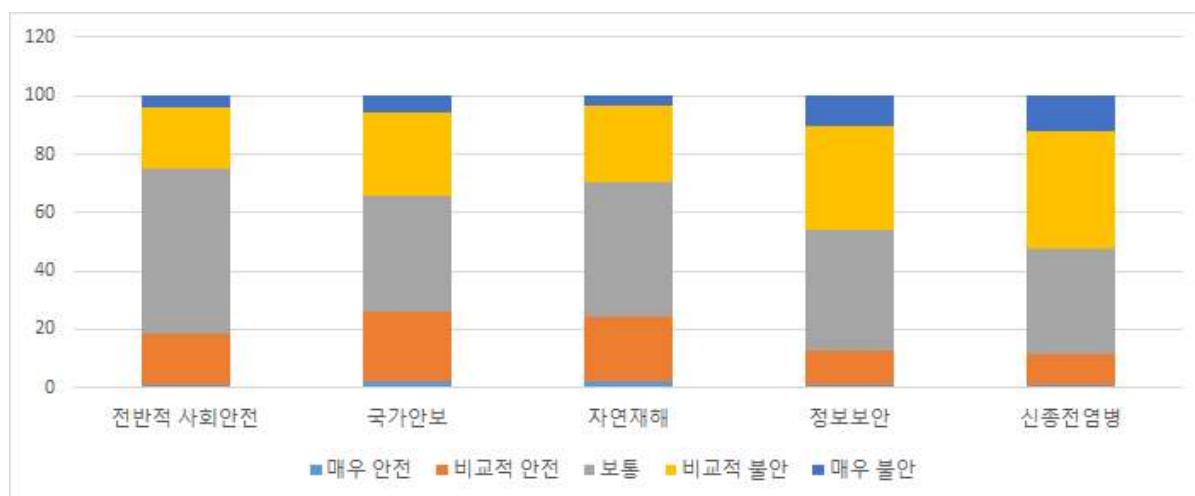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     | 2년전과 비교해 우리사회의 현재<br>안전상태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2년후 우리사회의 안전상태 예상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| 매우<br>안전                  | 약간<br>안전 | 변화<br>없다 | 약간<br>위험 | 매우<br>위험 | 매우<br>안전          | 약간<br>안전 | 변화<br>없다 | 약간<br>위험 | 매우<br>위험 |
| 2014 | 2.6                       | 22.6     | 41.0     | 28.7     | 5.0      | 3.4               | 26.6     | 44.3     | 21.0     | 4.5      |
| 남    | 2.5                       | 22.6     | 41.1     | 28.7     | 5.1      | 3.4               | 26.6     | 44.4     | 21.0     | 4.6      |
| 여    | 3.1                       | 22.7     | 40.5     | 28.9     | 4.7      | 3.7               | 26.8     | 44.1     | 21.2     | 4.1      |

## 12. 분야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

### 전반적인 사회안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- 「전반적인 사회안전」에 대해 18.3%는 '안전하다'고 응답한 반면 24.9%는 '불안하다'고 응답하여 우리사회의 안전상태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불안함을 느끼는 계층은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연령이 낮아지고,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,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'불안하다'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분야별로는 「국가안보(전쟁가능성, 북핵문제)」에 대해 '안전하다'는 비율은 25.9%로 나타난 반면 '불안하다'는 비율은 34.5%로 나타남
- 「자연재해」는 '안전하다'는 비율은 24.5%, '불안하다'는 비율은 29.4%
- 「정보보안(컴퓨터 바이러스, 해킹등)」은 '안전하다' 12.7%, '불안하다' 45.8%
- 「신종 전염병(신종바이러스, 조류독감 등)」은 '안전하다' 11.2%, '불안하다' 52.6%



【 분야별 사회안전 상태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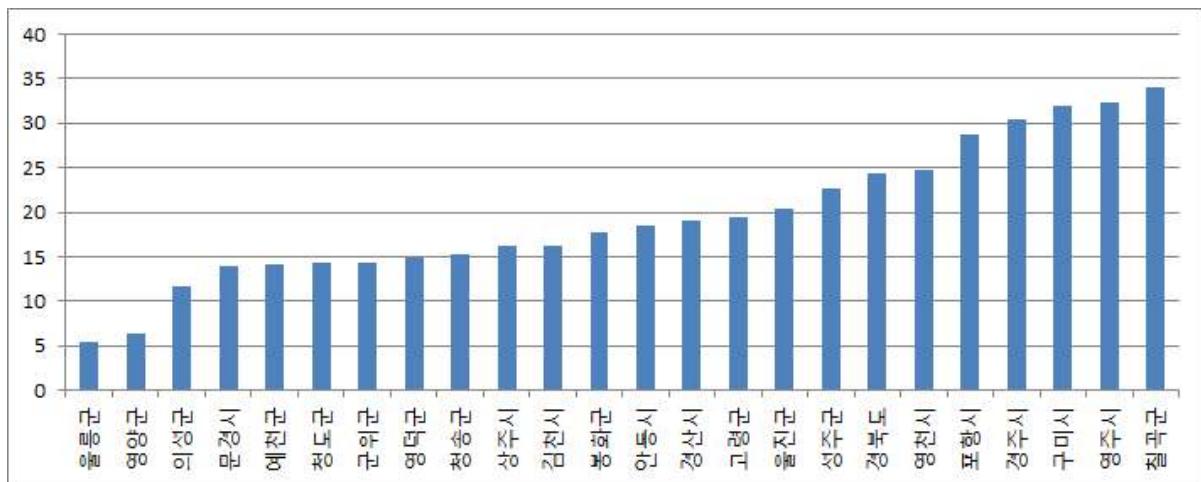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|          | 매우 안전 | 비교적 안전 | 보통   | 비교적 불안 | 매우 불안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
| 전반적 사회안전 | 1.1   | 17.2   | 56.7 | 21.1   | 3.8   |
| 국가안보     | 2.3   | 23.6   | 39.6 | 28.9   | 5.6   |
| 자연재해     | 1.9   | 22.6   | 46.1 | 25.9   | 3.5   |
| 정보보안     | 1.1   | 11.6   | 41.5 | 35.3   | 10.5  |
| 신종전염병    | 1.0   | 10.2   | 36.3 | 40.4   | 12.2  |

## 13. 야간보행 안전도

### 야간보행에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24.4%

- 「야간보행에 두려운 곳이 있다」고 응답한 비율은 24.4%
  - 시·군별로는 울릉군이 5.5%로 가장 낮은 반면 칠곡군은 34.1%로 가장 높음
- 두려운 원인으로는 「우범지역」 49.8%로 가장 높고 이어 「가로등이 없다」 38.1%, 「인적이 드물다」 9.7%로 나타남
  - 「가로등이 없다」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주군(67.3%), 가장 낮은 곳은 영덕군 22.9%의 순으로 나타남



【야간 보행에 두려운 곳이 있다】

| 구분   | 야간보행에<br>두려운 곳이<br>있다 | 원인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가로등이 없다 | 인적이 드물다 | 우범지역이다 | 기타  |
| 2014 | 24.4                  | 38.1    | 9.7     | 49.8   | 2.4 |
| 남    | 24.5                  | 38.0    | 9.2     | 50.4   | 2.4 |
| 여    | 24.1                  | 38.6    | 12.0    | 47.0   | 2.4 |

## 14. 자신의 준법수준 및 국민들의 공공질서 준수 수준

### **평소 스스로의 준법수준에 대해 잘 지킨다는 비율은 75.5%**

#### □ 평소 스스로의 준법수준에 대해 「잘 지킨다」는 비율은 75.5%로 나타남

- 준법수준은 성, 연령, 학력, 소득계층 등 인구계층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

(단위 : %)

| 구분   | 아주 잘지킨다 | 비교적 잘지킨다 | 보통이다 | 지키지 않는다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2014 | 23.9    | 51.6     | 23.6 | 0.9     |
| 남    | 23.8    | 52.3     | 23.0 | 0.9     |
| 여    | 24.3    | 48.4     | 26.4 | 0.9     |

#### □ 우리 국민들의 공공질서 수준

- 「차례지키기(승강장, 극장, 회장실 등)」는 응답자의 7.5%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
- 「담배꽁초 버리기, 침뱉기」는 응답자의 20.9%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
- 「횡단보도로 다니기 등」은 응답자의 20.9%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
- 「운전자의 교통질서」는 응답자의 14.5%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
- 「공공장소 금연」은 응답자의 19.4%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
- 「휴대폰 사용, 크게 떠들」은 응답자의 22.9%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

(단위 : %)

|            | 매우 노력한다 | 약간 노력한다 | 보통이다 |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|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① 차례지키기    | 12.7    | 45.6    | 34.3 | 6.9         | 0.6         |
| ② 거리환경질서   | 11.6    | 31.7    | 35.9 | 17.9        | 3.0         |
| ③ 보행질서     | 8.9     | 35.0    | 42.5 | 12.6        | 1.1         |
| ④ 운전자 교통질서 | 8.6     | 31.6    | 45.2 | 13.4        | 1.2         |
| ⑤ 공공장소금연   | 13.6    | 28.8    | 38.2 | 16.9        | 2.5         |
| ⑥ 공공장소 정숙  | 9.9     | 26.6    | 40.6 | 19.6        | 3.3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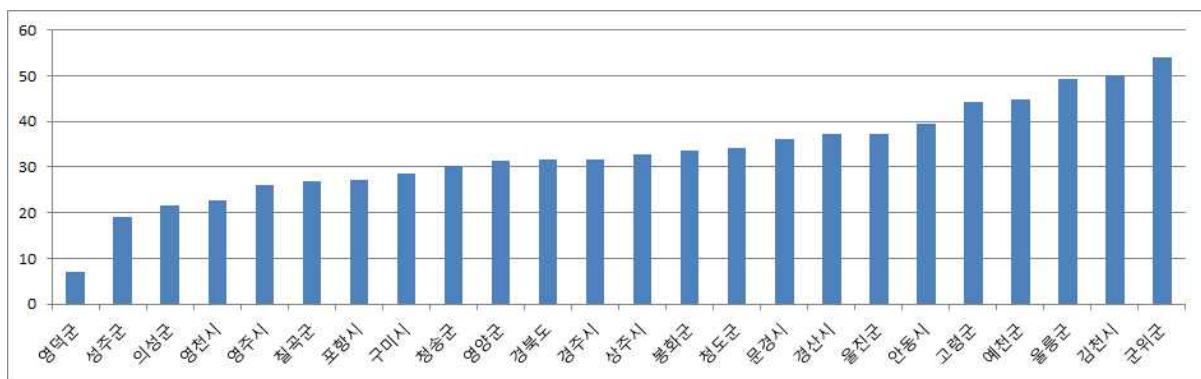
## 15. 교통이용 수단과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

### 교통이용수단으로 승용/승합차 26.4%, 시내버스 25.9%, 자전거 4.3%

- 교통이용수단으로 「승용/승합차」 26.4%로 가장 많고 「시내버스」 25.9%, 「택시」 9.6%의 순
- 자전거는 4.3%로 나타났고, 시군별로는 상주시가 15.0%로 가장 높음

| 구분     | 자전거 | 오토바이<br>화물차 | 시내버스 | 철도  | 택시   | 승용/승<br>합차 | 고속/시<br>외버스 | 통근(통<br>학)버스 | 기타   |
|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
| 2013   | 3.4 | 3.0         | 25.6 | 1.2 | 7.8  | 30.8       | 0.9         | 2.9          | 24.4 |
| 2014   | 4.3 | 6.1         | 25.9 | 2.2 | 9.6  | 26.4       | 2.1         | 2.2          | 21.2 |
| 29세이하  | 4.4 | 1.4         | 33.2 | 6.1 | 9.4  | 16.4       | 2.2         | 7.7          | 19   |
| 30~39세 | 3.4 | 2.1         | 17.0 | 2.3 | 15.1 | 40.2       | 1.3         | 2.8          | 15.9 |
| 40~49세 | 3.5 | 4.5         | 18.6 | 2.3 | 12.0 | 39.4       | 1.6         | 2.6          | 15.5 |
| 50~59세 | 4.5 | 8.2         | 21.8 | 1.8 | 8.5  | 32.7       | 1.9         | 2            | 18.6 |
| 60세이상  | 4.9 | 8.4         | 31.9 | 1.1 | 7.3  | 16.1       | 2.6         | 0.4          | 27.4 |

- 거주지역의 「교통안전시설 만족도」는 '만족한다' 31.7%, '불만족한다' 11.7%로 나타남
- 시·군별로 '만족한다'는 비율이 영덕군이 7.2%로 가장 낮고 군위군은 54.0%로 가장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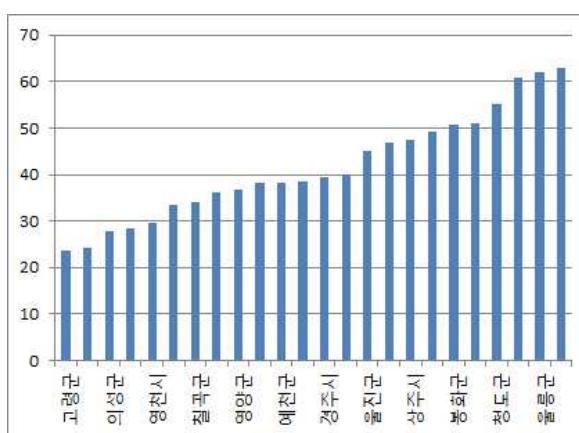


|        | 매우 만족 | 약간 만족 | 보통   | 약간 불만족 | 매우 불만족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
| 2014   | 3.8   | 27.9  | 56.5 | 10.3   | 1.4    |
| 29세이하  | 3.0   | 25.3  | 58.3 | 11.5   | 1.8    |
| 30~39세 | 2.6   | 24.5  | 57.6 | 12.6   | 2.7    |
| 40~49세 | 3.3   | 27.4  | 55.7 | 12.0   | 1.6    |
| 50~59세 | 4.3   | 30.9  | 53.0 | 10.5   | 1.3    |
| 60세이상  | 4.4   | 28.5  | 57.8 | 8.4    | 0.9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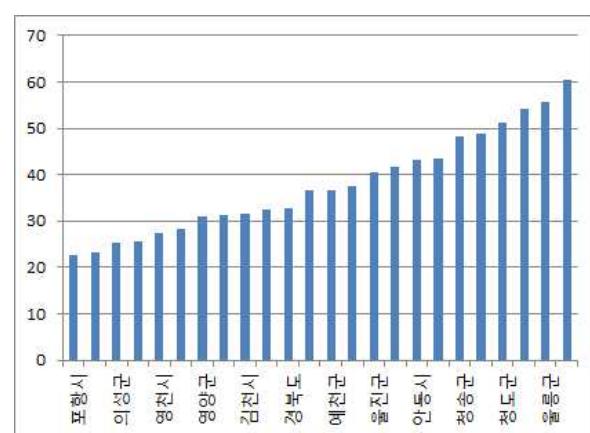
## 16. 국가기관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

### **행정기관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6.0%, 사법기관 신뢰한다는 비율은 32.7%**

- 「중앙·지방행정기관」을 '신뢰한다'는 비율은 36.0%로 전년 36.4%에 비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
  - 연령대별로 29세이하가 26.9%로 가장 낮은 반면 60세이상은 46.1%로 가장 높음
  - 월평균 소득구간별로 1백만원 미만은 41.7%로 가장 높은 반면 5백만원 이상은 29.9%로 가장 낮음
- 「사법기관」을 '신뢰한다'는 비율은 32.7%로 전년 33.6%에 비해 △0.9%p. 하락
  - 연령대별로 30~39세가 22.0%로 가장 낮은 반면 60세이상은 43.2%로 가장 높음
  - 월평균 소득구간별로 2백~3백만원이 29.0%로 가장 낮은 반면 1백만원 미만은 38.8%로 가장 높음



**【행정기관】**



**【사법기관】**

(단위 : %)

|      | 중앙행정기관, 지방행정기관 |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| 경찰, 검찰, 법원 등 사법기관 |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| 매우 신뢰          | 신뢰   | 보통   | 신뢰 않음 | 전혀 신뢰 않음 | 매우 신뢰             | 신뢰   | 보통   | 신뢰 않음 | 전혀 신뢰 않음 |
| 2013 | 4.7            | 31.7 | 49.8 | 11.8  | 1.0      | 4.4               | 29.2 | 50.5 | 13.7  | 2.2      |
| 2014 | 4.6            | 31.4 | 45.7 | 15.7  | 2.7      | 3.9               | 28.8 | 45.7 | 18.1  | 3.6      |
| 남    | 4.4            | 30.9 | 45.5 | 16.4  | 2.8      | 3.7               | 28.2 | 45.4 | 18.9  | 3.8      |
| 여    | 5.3            | 33.2 | 46.7 | 12.8  | 2.0      | 4.7               | 31.0 | 46.8 | 14.8  | 2.7      |

## 17. 식품 안정성에 대한 인식

### 국내산 농산물은 45.2%, 수입산 농산물은 14.1%가 불안함을 느낍

- 「농산물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」에서 국내산 농산물은 45.2%가 '불안하지 않다'고 대답한 반면 '불안하다'고 대답한 비율은 14.1%로 나타남
- 이에 비해 수입산 농산물은 11.6%가 '불안하지 않다'고 응답한 반면 '불안하다'고 응답한 비율은 52.5%로 수입산 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해 지역소비자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

|         |       | (단위 : %)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|       | 전혀 불안하지 않다 | 별로 불안하지 않다 | 보통   | 약간 불안하다 | 매우 불안하다 |
| 국내산 농산물 | 2014년 | 8.7        | 36.5       | 40.8 | 12.5    | 1.6     |
|         | 남 자   | 8.4        | 35.9       | 41.2 | 12.9    | 1.6     |
|         | 여 자   | 10.0       | 39.1       | 39.3 | 10.4    | 1.2     |
| 수입산 농산물 | 2014년 | 1.1        | 10.5       | 35.9 | 37.0    | 15.5    |
|         | 남 자   | 1.1        | 10.3       | 35.5 | 37.4    | 15.8    |
|         | 여 자   | 1.0        | 11.7       | 37.8 | 35.3    | 14.2    |

- 「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」에서 '안전하다'고 느끼는 비율은 유기농식품 55.1%, 국내산 농축산물 50.6%로 높게 나타남
- 이에 비해 수입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은 은 8.6%, 유전자변형식품(GMO) 6.0% 등 '안전하다'고 느끼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



|               | 매우 안전 | 약간 안전 | 보통   | 약간 불안 | 매우 불안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친환경(유기농)식품    | 10.1  | 45.0  | 37.3 | 7.1   | 0.6   |
| 국내산 농수축산물     | 8.2   | 42.4  | 40.9 | 7.8   | 0.8   |
| 수입산 농수축산물     | 0.7   | 7.9   | 37.2 | 43.1  | 11.1  |
| 가공식품          | 0.8   | 7.8   | 40.8 | 41.0  | 9.6   |
| 유전자 변형식품(GMO) | 0.6   | 5.4   | 29.8 | 38.3  | 25.9  |

## VI. 문화와 여가

### 18. 문화예술행사 경험, 정보입수경로, 만족도

#### **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인구비율은 43.3%**

- 지난 1년간 「문화예술행사 관람경험」 인구비율은 43.3%로 나타났고, '영화'가 38.2%로 가장 높고 이어 '박물관' 8.9%, '음악·연주회' 8.6%의 순으로 나타남
- 연령별로 29세이하는 79.9%로 나타난 반면 60세이상은 12.0%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문화예술행사 향유율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

| 구분   | 관람한 적이 있다 | 문화예술행사 관람율 |      |     | 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
|      |           | 음악,연주회     | 영화   | 박물관 | 스포츠 |
| 2014 | 43.3      | 8.3        | 38.2 | 8.9 | 6.7 |
| 남    | 45.9      | 8.7        | 40.5 | 9.7 | 7.5 |
| 여    | 31.4      | 6.3        | 27.7 | 5.1 | 3.4 |

- 「문화예술행사 정보입수 경로」로 '인터넷'이 46.1%로 가장 높았고, 이어 'TV' 20.4%, '입소문' 19.6%, '기타' 13.9%의 순으로 나타남
- 연령대별로 29세이하는 '인터넷'이 65.5%로 가장 높은 반면, 60세 이상은 '입소문'이 36.3%로 가장 높음

| 구분     | TV   | 인터넷  | 입소문  | 기타  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2014   | 20.4 | 46.1 | 19.6 | 13.9 |
| 29세이하  | 12.3 | 65.5 | 15.2 | 7.0  |
| 30~39세 | 19.4 | 60.7 | 12.4 | 7.4  |
| 40~49세 | 21.0 | 48.4 | 16.4 | 14.2 |
| 50~59세 | 26.8 | 25.9 | 27.3 | 20.0 |
| 60세이상  | 25.3 | 9.8  | 36.3 | 28.6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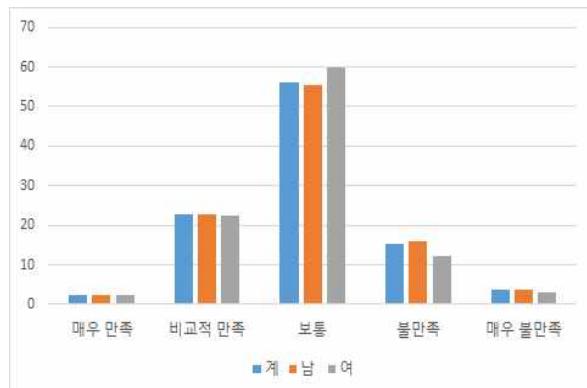
- 「문화예술행사 참여 만족도」는 '만족한다'가 67.3%로 나타남
- 연령대별로 29세이하는 64.4%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반면, 60세 이상은 72.7%로 가장 높음

| 구분     | 매우 만족 | 비교적 만족 | 보통   | 불만족 | (단위 : %) |  |
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|--|
|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|     | 매우 불만족   |  |
| 2014   | 9.3   | 58.0   | 30.8 | 1.6 | 0.4      |  |
| 29세이하  | 8.0   | 56.4   | 33.8 | 1.5 | 0.3      |  |
| 30~39세 | 7.9   | 58.3   | 31.8 | 1.5 | 0.5      |  |
| 40~49세 | 8.6   | 60.1   | 29.5 | 1.6 | 0.2      |  |
| 50~59세 | 9.3   | 57.3   | 31.1 | 1.8 | 0.5      |  |
| 60세이상  | 16.0  | 56.7   | 25.6 | 1.1 | 0.6      |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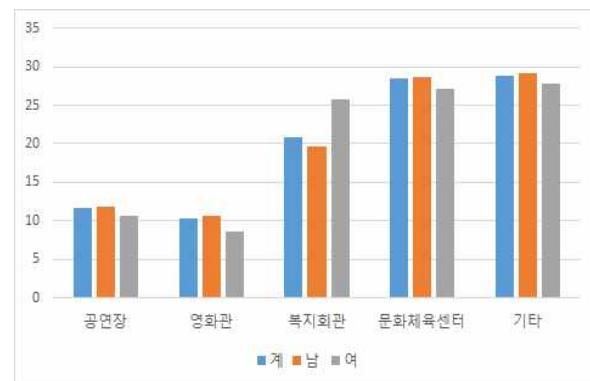
## 19.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및 필요한 문화시설

###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시설로는 「문화체육센터」. 「복지회관」의 순

- 지역의 「문화예술시설」에 대해 '만족한다'는 비율은 25.0%로 나타난 반면 '불만족한다'는 비율은 18.9%로 나타남
- 지역에 필요한 「문화예술시설」로는 '문화·체육센터' 28.4%로 가장 높고 이어 '복지회관' 20.8%, '공연장' 11.6%, '영화관' 10.3%의 순으로 나타남
- 남자는 '문화체육센터'를 가장 많이 선호, 여자는 '문화체육센터'와 '복지회관'을 선호



【문화예술시설 만족도】



【필요 문화시설】

(단위 : %)

| 구분   | 거주지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|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| 거주지 필요 문화예술시설 |      |      |        |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     | 매우 만족          | 비교적 만족 | 보통   | 불만족  | 매우 불만족 | 공연장           | 영화관  | 복지회관 | 문화체육센터 | 기타   |
| 2014 | 2.4            | 22.6   | 56.1 | 15.3 | 3.6    | 11.6          | 10.3 | 20.8 | 28.4   | 28.9 |
| 남    | 2.4            | 22.6   | 55.3 | 16.0 | 3.7    | 11.8          | 10.7 | 19.7 | 28.6   | 29.2 |
| 여    | 2.5            | 22.4   | 59.8 | 12.2 | 3.1    | 10.7          | 8.5  | 25.8 | 27.2   | 27.8 |

## 20.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경험

**지난 1년간 국내여행 경험비율은 47.1%, 해외여행 경험 비율은 9.8%**

- 지난 1년간 관광목적으로 「국내여행을 다녀온 적 있다」는 비율은 47.1%
  - 성별로는 남자가 49.7%, 여자는 35.6%로 남자가 국내여행을 더 많이 다님
  - 연령별로는 30대가 67.5%로 가장 높았고, 40~49세 61.2%, 29세이하 56.5%의 순
  - 숙박여행은 평균 2.6회, 1인당 평균 숙박일수는 2.2일로 나타남
  - 당일여행은 평균 4.3회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

| 구분     | 국내여행 경험<br>있다 | 숙박여행 |                | (당일여행<br>(평균횟수))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| 평균횟수 | 1회당 평균<br>숙박일수 |                  |
| 2014   | 47.1          | 2.6  | 2.2            | 4.3              |
| 남      | 49.7          | 2.6  | 2.2            | 4.4              |
| 여      | 35.6          | 2.5  | 2.3            | 3.5              |
| 29세이하  | 56.5          | 2.7  | 2.3            | 4.0              |
| 30~39세 | 67.5          | 3.0  | 2.3            | 5.6              |
| 40~49세 | 61.2          | 2.7  | 2.2            | 4.9              |
| 50~59세 | 49.2          | 2.4  | 2.2            | 4.3              |
| 60세이상  | 30.6          | 2.1  | 2.3            | 2.9              |

- 지난 1년간 「해외여행을 다녀온 적 있다」는 비율은 9.8%
  - 남자 10.6%, 여자 6.0%로 나타났고, 관광목적은 '관광' 70.9%, '업무' 14.0%의 순
  -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지만 「향후 계획은 있다」는 비율은 26.7%로 나타남

| 구분   | 있다   | 여행목적 |      |      |     | 없지만<br>향후<br>계획은<br>있다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|      | 관광   | 가사   | 업무   | 교육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4 | 9.8  | 70.9 | 11.3 | 14.0 | 3.8 | 26.7                   |
| 남    | 10.6 | 70.5 | 11.4 | 14.5 | 3.7 | 29.0                   |
| 여    | 6.0  | 73.8 | 10.7 | 10.5 | 5.1 | 17.1                   |

## 21.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

### 양후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, 휴식, 사교관련의 순

- 앞으로 시간적,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경우 「여가활동」으로는 '여행' 23.6%, '휴식' 11.6%, '사교관련' 10.0%의 순임
- 남자의 경우 '여행'이 24.3%로 가장 높고 이어 '휴식' 11.1%, '사교관련' 9.7%의 순
- 여자의 경우 '여행' 20.5%, '휴식' 14.1%, '사교관련' 11.8%의 순
- 연령별 여가활동 선호
  - 20대는 '여행' 22.9%, '문화예술관람' 12.5%, '스포츠활동' 10.2%의 순
  - 40대는 '여행' 26.9%, '스포츠활동' 10.6%, '문화예술관람' 9.7%의 순
  - 60대이상은 '여행' 19.8%, '휴식' 17.5%, '사교관련' 14.9%의 순



【 하고싶은 여가활동-여행 】

(단위 : %)

| 구분     | 여행   | 문화예술관람 | 스포츠 활동 | 휴식   | 사교관련 | 기타   |
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2014   | 23.6 | 7.8    | 7.1    | 11.6 | 10.0 | 39.8 |
| 남      | 24.3 | 8.1    | 7.8    | 11.1 | 9.7  | 39.1 |
| 여      | 20.5 | 6.8    | 4.0    | 14.1 | 11.8 | 42.7 |
| (연령별)  |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29세이하  | 22.9 | 12.5   | 10.2   | 5.7  | 5.7  | 43.0 |
| 30~39세 | 25.9 | 11.7   | 10.5   | 7.6  | 5.6  | 38.6 |
| 40~49세 | 26.9 | 9.7    | 10.6   | 8.0  | 6.5  | 38.3 |
| 50~59세 | 26.6 | 7.5    | 7.9    | 10.4 | 9.8  | 37.7 |
| 60세이상  | 19.8 | 4.1    | 2.6    | 17.5 | 14.9 | 41.1 |

## 22. 인터넷 활용 및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용

###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32.9%, 가구당 통신비용은 3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

#### □ 인터넷 활용

- 「인터넷 뱅킹, 폰 뱅킹 서비스 이용율」은 32.9%로 나타남
- 「문자메세지 이용율」은 63.9%이고, 남자 63.9%, 여자 42.9%로 나타남
- 「이메일 보유율」은 42.5%이고, 남자 45.4%, 여자 29.3%로 나타남
- 「홈페이지 보유율」은 21.1%이고, 남자 22.5%, 여자 15.1%로 나타남
- 「인터넷 동호회 가입」은 13.3%이고, 남자 14.5%, 여자 8.2%로 나타남
- 「SNS 사용」은 44.6%이고, 남자 47.3%, 여자 32.4%로 나타남

(단위 : %)

| 구분     | 인터넷뱅킹·폰<br>뱅킹서비스<br>이용율 | 문자메세지<br>이용율 | 개인 이메일 주소 및 홈페이지 보유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E-mail              | 홈페이지 | 인터넷<br>동호회<br>가입 | SNS(페이스<br>북, 카카오톡,<br>트위터 등) |
| 2012   | 34.8                    | 61.2         | 44.3                | 23.3 | 12.5             | 35.3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4   | 32.9                    | 60.1         | 42.5                | 21.1 | 13.3             | 44.6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남      | 35.3                    | 63.9         | 45.4                | 22.5 | 14.5             | 47.3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여      | 22.5                    | 42.9         | 29.3                | 15.1 | 8.2              | 32.4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연령별)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9세이하  | 50.9                    | 93.1         | 90.7                | 52.7 | 26.6             | 88.8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0~39세 | 73.3                    | 94.6         | 87.8                | 47.9 | 32.4             | 84.9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0~49세 | 59.6                    | 91.5         | 69.7                | 30.2 | 21.5             | 72.0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0~59세 | 29.2                    | 72.9         | 33.8                | 14.1 | 9.6              | 43.6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0세이상  | 4.7                     | 18.8         | 5.7                 | 2.5  | 1.6              | 6.8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□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용

- 「가구당 월평균 통신비용」은 3만원미만이 26.0%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~20만원미만이 23.5%, 5~10만원미만 20.5%의 순으로 나타남

(단위 : %)

| 구분        | 3만원미만 | 3~5만원미만 | 5~10만원미<br>만 | 10~20만원미<br>만 | 20만원이상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2012      | 20.8  | 13.7    | 20.7         | 28.0          | 16.7   |
| 2014      | 26.0  | 12.9    | 20.5         | 23.5          | 17.0   |
| 1백만원미만    | 51.6  | 20.2    | 18.9         | 7.2           | 2.1    |
| 1백~2백만원미만 | 16.7  | 16.0    | 31.3         | 26.0          | 10.0   |
| 2백~3백만원미만 | 10.1  | 8.8     | 23.6         | 35.6          | 21.9   |
| 3백~4백만원미만 | 7.3   | 3.6     | 15.9         | 37.5          | 35.7   |
| 4백~5백만원미만 | 8.2   | 3.5     | 13.3         | 36.4          | 38.6   |
| 5백만원이상    | 7.0   | 2.6     | 7.1          | 32.5          | 50.9   |

## 23.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서비스 활용

###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30~39세가 이용률이 가장 높음

#### □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율

- 「TV·홈쇼핑」 이용률은 26.1% : 30~39세가 55.0%로 가장 높음
- 「증권」 거래 이용률은 4.3% : 30~39세가 9.4%로 가장 높음
- 「상품구매」 이용률은 30.5% : 30~39세가 68.5%로 가장 높음
- 「예약 및 예매」 이용률은 20.2% : 30~39세가 49.7%로 가장 높음



【전자상거래 이용율】

(단위 : %)

| 구분         | TV홈쇼핑 | 증권   | 상품구매 | 예약 및 예매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
| 2014       | 26.4  | 4.3  | 30.5 | 20.2    |
| 29세 이하     | 29.2  | 3.3  | 54.2 | 41.6    |
| 30~39세     | 55.6  | 9.4  | 68.5 | 49.7    |
| 40~49세     | 48.0  | 8.9  | 52.3 | 34.2    |
| 50~59세     | 29.5  | 4.8  | 25.7 | 12.6    |
| 60세 이상     | 5.2   | 0.8  | 4.0  | 1.8     |
| 1백만원 미만    | 6.9   | 0.8  | 8.3  | 4.7     |
| 1백~2백만원 미만 | 21.3  | 1.9  | 22.9 | 12.6    |
| 2백~3백만원 미만 | 33.2  | 4.5  | 37.1 | 23.1    |
| 3백~4백만원 미만 | 38.8  | 6.3  | 45.0 | 30.9    |
| 4백~5백만원 미만 | 43.4  | 9.1  | 52.5 | 37.1    |
| 5백만원 이상    | 46.9  | 12.4 | 57.2 | 45.4    |

## VII. 울진군 특성항목

### 24.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

#### **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으로 ‘TV, 영화, DVD시청’에 가장 많이 응답함**

-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으로 TV, 영화, DVD시청(30.2%), 가사일, 휴식(29.3%)의 비율이 높았고 이어 스포츠활동, 취미(12.7%) 등의 순

(단위 : %)

| 구분     | TV,<br>영화,<br>DVD<br>시청 | 여행   | 문화예술<br>관람 | 스포츠<br>활동,<br>취미 | 컴퓨터게임,<br>인터넷검색 | 자기계발 | 종교,<br>봉사활동 | 가사일,<br>휴식 | 기타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2014   | 30.2                    | 5.9  | 2.1        | 12.7             | 3.9             | 4.5  | 9.8         | 29.3       | 1.5 |
| 남자     | 30.1                    | 7.0  | 2.2        | 13.5             | 4.2             | 4.7  | 8.4         | 28.3       | 1.5 |
| 여자     | 30.7                    | 1.4  | 1.9        | 9.2              | 2.8             | 3.3  | 15.7        | 33.3       | 1.7 |
| (연령별)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| 29세 이하 | 23.7                    | 7.2  | 8.9        | 8.7              | 18.6            | 8.3  | 1.6         | 19.6       | 3.5 |
| 30~39세 | 28.3                    | 11.8 | 3.3        | 14.5             | 8.1             | 6.2  | 5.8         | 21.7       | 0.4 |
| 40~49세 | 26.9                    | 7.6  | 3.6        | 20.7             | 6.2             | 4.2  | 5.3         | 25.1       | 0.3 |
| 50~59세 | 29.5                    | 6.7  | 1.7        | 12.9             | 3.6             | 6.5  | 9.7         | 28.0       | 1.5 |
| 60세 이상 | 33.0                    | 3.4  | 0.6        | 9.8              | 0.4             | 2.7  | 13.5        | 34.6       | 2.1 |

### 25. 관광명소

#### **울진을 자랑할 수 있는 관광지는 ‘온천’이 37.5%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**

- 울진을 자랑할 수 있는 관광지는 ‘온천’이 37.5%로 가장 높았고 이어 ‘울진금강 소나무숲길’ 36.7%, ‘자연휴양림’ 9.1% 등의 순

(단위 : %)

| 구분   | 울진금강소나무<br>숲길 | 불영계곡 | 성류굴 | 온천   | 자연휴양림 | 기타 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2014 | 36.7          | 7.5  | 7.5 | 37.5 | 9.1   | 1.7 |
| 남자   | 37.8          | 8.9  | 7.6 | 33.6 | 10.1  | 2.1 |
| 여자   | 32.3          | 2.1  | 6.9 | 53.7 | 5.1   | -   |

## 26. 복지서비스분야

### **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분야는 직접적인 현금지원**

-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분야는 ‘직접적인 현금지원’이 58.8%로 가장 높았고 이어 ‘사회복지서비스, 직업상담등서비스지원’ 12.4%, ‘요양원, 보육시설등보호시설확충’ 11.2% 등의 순

| 구분     | (단위 : %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       | 직접적인<br>현금지원 | 각종 용자등<br>간접적인<br>현금지원 | 쌀, 기름,<br>휠체어등<br>현물지원 | 사회복지서비스,<br>직업상담등<br>서비스지원 | 요양원, 보육<br>시설등<br>보호시설확충 | 영구임대<br>주택 | 기타  |
| 2014   | 58.8         | 6.6                    | 4.8                    | 12.4                       | 11.2                     | 5.8        | 0.5 |
| 남자     | 57.9         | 6.3                    | 5.2                    | 13.2                       | 10.9                     | 5.8        | 0.6 |
| 여자     | 62.1         | 7.9                    | 3.3                    | 8.8                        | 12.5                     | 5.4        | —   |
| (연령별)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
| 29세 이하 | 49.5         | 8.4                    | 9.6                    | 16.8                       | 8.4                      | 4.5        | 2.8 |
| 30~39세 | 37.6         | 9.6                    | 6.2                    | 14.3                       | 18.9                     | 13.3       | —   |
| 40~49세 | 42.5         | 9.6                    | 2.9                    | 29.9                       | 7.2                      | 7.9        | —   |
| 50~59세 | 53.4         | 10.3                   | 1.8                    | 15.3                       | 12.4                     | 6.7        | —   |
| 60세 이상 | 73.1         | 3.1                    | 6.0                    | 4.0                        | 10.6                     | 2.7        | 0.5 |

## 27. 사회복지서비스 수준

### **울진군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‘보통’**

- 울진군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‘보통’가 45.8%로 가장 높고 이어 ‘높다’ 33.7%, ‘매우높다’ 12.0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| 구분   | (단위 : %) |      |      |     |      |
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
|      | 매우높다     | 높다   | 보통이다 | 낮다  | 매우낮다 |
| 2014 | 12.0     | 33.7 | 45.8 | 6.1 | 2.3  |
| 남자   | 12.0     | 34.2 | 44.8 | 6.4 | 2.6  |
| 여자   | 12.3     | 31.7 | 49.6 | 5.3 | 1.1  |

## 28. 군정추진방향

### **울진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‘의료, 보건시설 확대’**

- 울진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‘의료, 보건시설 확대’가 64.7%, ‘교육, 복지분야 확대’가 14.5%로 높았고, ‘문화, 스포츠 시설 다양화’ 12.3% 등의 순

(단위 : %)

| 구분   | 의료, 보건시설 확대 | 환경, 도시문제 개선 | 교육, 복지분야 확대 | 문화, 스포츠 시설 다양화 | 식생활, 안전분야 확대 | 기타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2014 | 64.7        | 6.8         | 14.5        | 12.3           | 1.6          | —  |
| 남자   | 63.2        | 7.5         | 15.0        | 13.2           | 1.2          | —  |
| 여자   | 71.1        | 3.7         | 12.8        | 8.8            | 3.6          | —  |

## 29. 지역발전방안

### **울진군 지역명품화 전략사업을 위해 추진해야 할 분야는 ‘자연자원’**

- 울진군 지역명품화 전략사업을 위해 추진해야 할 분야는 ‘자연자원’이 50.2%, ‘농수산물자원’이 42.5%로 높음

(단위 : %)

| 구분   | 농수산물자원 | 예술자원 | 인물자원 | 자연자원 | 문화자원 | 기타  |
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2014 | 42.5   | 1.6  | 1.1  | 50.2 | 4.5  | 0.1 |
| 남자   | 42.6   | 1.5  | 1.0  | 50.3 | 4.7  | 0.1 |
| 여자   | 42.3   | 2.4  | 1.8  | 49.9 | 3.7  | —   |